

지방은행, 안정 속 비은행 수익성·디지털 전문성 강화

조직개편·외부 인재 영입 단행
연금·디지털조직 신설, 수익 다각화
iM뱅크, 디지털 혁신·수도권 강화
전북은행, 세대교체로 리더십 강화

지방은행이 연말 인사를 통해 수익 다각화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금리인하 전망에 이자 이익이 감소할 것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금·자산관리 등 비이자 부문 수익 확대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판로 확보에 힘쓰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은 지난해 12월말 연말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각 지방은행이 은행장의 연임을 통해 안정적 경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이번 인사는 외부 인사 영입과 조직 개편을 통한 비은행·디지털 전문성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앞서 5대 지방은행 가운데 3곳(iM·광주·전북)은 인사에 앞서 임기를 마친 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오는 3월 임기를 마치는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도 연임할 것인 관측이 우



서울 여의도 금융가.

/뉴스시스

세하다.

고환율 및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각 은행장 교체로 통한 노선 변경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각 지방은행은 기존 영업전략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편, 연말 인사를 통해 외부 인사 영입과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은행의 약점으로 꼽히는 '비은행 수

익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대 지방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는 평균 95.5%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8.1%보다 7.4%포인트(p)나 높다. 금융앱 이용자 수에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연금·외환 시장 공략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자산관리 전문가인

최재영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이 부산·경남은행 WM·연금그룹 부행장으로, 자금융자 전문가인 정해수 전 신한은행 IPS 기획본부장을 부산은행 부행장으로 영입했다.

조직 개편에서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연금사업부와 시니어금융팀을 각각 신설해 연금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고객부와 디지털영업센터, IT기획본부를 설치해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iM뱅크는 디지털 혁신에 집중한다. 디지털 금융 전문가인 황원철 전 우리FIS 부사장이 그룹디지털마케팅총괄 겸 iM뱅크 디지털비즈니스(BIZ) 그룹장으로 영입됐고, 네이버, 라인 등에서 앱 개발 업무를 전담했던 성현탁 전 KB부동산 플랫폼부 부장도 iM뱅크 ICT그룹 상무로 부임했다.

또한 iM뱅크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국 단위 영업망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 영업 확대 및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에 힘쓴다. 김기만 iM뱅크 수도권 그룹 부행장보는 부행장으로 승진했고, 그룹 계열사인 iM데이

터, iM시스템, iM유페이, iM신용정보의 CEO도 iM뱅크 출신으로 교체됐다.

광주은행은 비이자영업 확대에 집중한다. WM고객부와 외환사업부, 카드사업부를 한데 묶은 비이자영업본부를 신설했고, 기관영업부와 신탁영업부도 각각 기관영업본부와 신탁본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과도한 이자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이자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다.

전북은행은 세대교체에 속도를 낸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연말 인사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부행장 4인을 교체했다. 새롭게 부임한 부행장 4명은 모두 1970년 이후 출생자로, 서울지점장, 여신관리부장, 종합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올 한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만큼,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대규모 인사는 없었다"라면서 "외부 전문인력 영입, 그룹사 간 검직 확대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분양 캘린더

둘째 주 전국 3곳서
총 1732가구 분양
전북주택 3곳 개관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732가구(일반분양 88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 충남 천안시 두정동 '천안 두정역양우내안아파트' 등에서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주택은 부산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부산덕천3차', 대구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레시앙', 세종시 합강동 '양우내안아파트' 등 3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대방산업개발은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31BL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11개동, 전용면적 119㎡, 총 470가구 규모다.

김해국제공항이 가깝고 부천-마산 복선전철(2025년 예정), 강서선(추진),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2029년 예정) 등 교통 호재가 있다. 단지 인근 현대프리미엄아울렛(2027년 예정)과 상업 및 의료시설이 들어서면 생활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양우건설은 세종시 합강동 일원에 '양우내안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동, 전용면적 84㎡, 아파트 698가구, 오피스텔 44실 규모로 조성된다.

KTX 오송역이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 유치원·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미호천, 출동산, 황우산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지원 기자 jiw13@

저축은행 '옥석가리기' 예고... 인수합병 빨라질까

잠재 매출 거론 저축은행 9곳
매각 1순위 대상인 계열 2곳

소문만 무성했던 저축은행 매각이 올해 다시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옥석가리기'를 시작하면서 교통 정리가 이뤄질 것인 관측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잠재 매출로 거론되는 저축은행은 총 9곳(상상인·상상인플러스·HB·OSB·조은·유니온·애뮤온·대원·대아저축은행)이다. 지난 2018년 LED업체인 '시티젠'이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대원저축은행은 대아저축은행 주식 100%를 보유한 대주주다. 대원저축은행은 인수 협상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 중 매각 1순위

로 점쳐지는 곳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2곳이다. 지난달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달 말까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2곳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상인 그룹은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그룹이 매각 속도를 높일 것인 시각이다.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OK금융그룹이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의 실사를 진행했다. 상상인계열 계열 저축은행 2곳의 총자산은 지난 3분기 기준 4조2000억원이다. OK저축은행(총자산 13조7800억원)과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업계 1위 SBI저축은행(총자산 14조8200억원)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충청지역에서 영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영업구역 확대도 피할 수 있다.

애뮤온저축은행 매각설 또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애뮤온저축은행의 대주주는 EQT파트너스다. 지난 2022년 베어링PEA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애뮤온계 파탈과 저축은행을 함께 사들였다. 통상 사모펀드 기업이 인수 4~5년차에 엑시트를 시도하는 만큼 언제든 매각이 가능할 것인 분석이다.

이 밖에도 최근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라온저축은행도 매물이다. 지난달 우영훈 라온저축은행 대표는 디스플레이 업체인 '베셀'에 전체 지분 60%를 매도했다. 현재 라온저축은행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금융당국이 원하는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성공한 저축은행 매각 사례는 한화생명의 한화저축은행 인수다. 지난해

10월 한화생명은 1785억원에 한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인수했다. 아울러 앞선 합병 또한 지난 2020년 우리금융그룹의 아주저축은행 인수다.

일각에선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비수도권에 한해 최대 4개 구역까지 진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를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영업 환경이 잘 갖춰진 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지방 저축은행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정상혁 은행장이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자산 중심 영업에 효율적 자원 활용, 질적 성장 중요"

(신한은행장)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
"강유점전 자세로 유연하게 대응"

"자산 성장 중심의 영업에 더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영전략 회의에는 정 행장을 비롯해 임·본부장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정 행장은 올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성장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방식은 ▲영업 방식의 변화 ▲

미래를 위한 변화 ▲현장의 변화 세 가지다.

그는 "변화의 방향을 잘 읽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업가치 밸류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자산 성장 중심의 영업에 더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행장은 "변화의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믿을 수 있는 신한을 위해 노력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전략과 제도도 변화하는 환경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면서도 유연함을 갖춘 '강유점전'의 자세로 강한 신한은행의 저력을 발휘함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디지털사업, 현장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플랫폼 Biz 중심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널 부문과 영업 지원 부문을 개편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